

# 광주 기업들 '내일채움공제' 앞다퉀 가입

### 출범 1주일만에 29개사... 전국 대비 7% 달해

###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인력수급 불일치 해소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인력수급 불일치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일채움공제'가 광주지역 기업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직원 복지향상은 물론 기업의 중장기적 미래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관심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앞다퉀 공제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27일 중소기업진흥공단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공식 출범한 '내일채움공제'에 1주일 만에 전국에서 1000명(398개사)이 가입했다. 이 가운데 광주에서는 건축자재 제조업체인 ㈜대광수치로

풀이 가장 먼저 가입했으며 현재까지 75명(29개사)이 신청을 마쳐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기업 숫자는 전국 1.6%에 불과하지만 공제가입 기업 수는 전국 대비 7%에 이르러 광주지역 기업들의 관심이 그 어느 지역보다 크다는 게 중진공 측의 설명이다.

내일채움공제는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뒤에는 공제금 월금 전액과 복리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매달 10만원을 적립하면 기업주가 20만원을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서 최초로 실행하는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 공제사업.

함께 적립, 5년 뒤에는 2.8% 가량의 이자를 포함, 근로자가 2100만원 가량을 손에 쥐게 된다.

공제에 가입하면 기업은 핵심인력의 장기 재직 및 생산성 향상의 효과와 함께 공제 납입금 전액을 손비인정(경비 처리) 받는다. 법인세 감면 등 최소 35%에서 최대 47%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는 5년 만기 재직 후 본인납입금 대비 3배 이상의 금액을 받는 것이 특징이다. 실제 중소기업청이 지난 7월 조사한 결

과, 중소기업 200개 가운데 핵심인력의 이직으로 경영상 피해를 봤다는 비율이 34.5%에 달해, 장기 재직 유도 측면에서 내일채움공제가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전영달 광주본부장은 "중소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의 중요성을 대외에 알리고 중소기업의 성장 및 인력수급을 위한 획기적인 공제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중진공 광주본부는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최근 3년간 상시근로자 또는 매출액이 연평균 15% 이상 증가한 '가젤형 기업'에 대해 시설자금은 45억원에서 70억원으로, 운전자금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 운용할 방침이다. 문의(062-600-3000).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074.93 (+6.88)

▼ 금리 2.53%(-0.01)

▼ 코스닥 567.23 (-1.01)

▼ 환율 1014.40원 (-2.40)

## "지역의무 공동도급 공사 발주 늘려 지역업체 수주물량 확대 적극 지원"

### 이주현 건설협회 광주시회장



"광주는 건설업 종사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지역 경제의 20%도 건설업의 몫입니다. 이러한 건설업을 살리고 지역 업체의 수주물량 확대를 위해 대청공사 분할발주의 지역의무 공동도급 활성화에 온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난 20일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 10대 회장이 선임된 이주현(71·해광건설 대표) 광주시회장은 "올 상반기 광주지역 건설수주액은 2333억원에 그쳐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했고, 지난해에 비해서도 실적도 15%나 감소했다"며 "임기 동안 지역 건설경기 환경을 개선하고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확충하는 데 전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우선 관급공사 발주 시 건설업체 경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간접비를 발주처가 책임지도록 소통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SOC나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처의 사정에 따른 공사 중단이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건설업체가 부담하고, 이런 간접비가 누적되면서 경영에 집이 돼 왔다"며 "건설업체가 보다 건전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장에게 충분한 건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건설업체가 부딪힌 힘든 환경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회장은 "광주의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건설업 종사자가

10.1%에 달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지만 수주실적은 매년 하락해 고사 위기에 직면할 위기"라며 "특히 올 상반기 공공공사는 지난해보다

다 60%나 줄어 공공공사 의존도가 높은 지역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는 물론, 경영정상화 압박을 받고 있는 지방 공공기관의 재정 여력이 약해지면서 공공공사 발주량 여건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라며 "49% 이상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청공사 발주 건수를 늘리는 등 지역업체의 수주 여건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건설업체가 실질적으로 보유한 임대자산과 회원권 등이 아직도 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데, 기업의 자본 유지에 힘이 되도록 건설업 관리규정 개정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해남 출신으로, 광주사범학교와 조선대학교를 졸업했다. 광주시 현대불협회 회장과 조선대학교 총동창회 수석부회장, 법무부 법사관위원회 광주지역연합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지난 2009년에는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건설산업의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로 조선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기도 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 300인 이상 기업 2016년 퇴직연금 가입 의무화

### 2022년부터 모든 기업 가입

### 정부,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

2016년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을 시작으로 기업의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된다. 2022년부터는 모든 기업이 가입해야 한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개인퇴직계좌(IRP)의 위험자산 보유유도가 확정기여형(DB)과 동일한 70%로 상향 조정되는 등 퇴직연금 적립금 운용 규제는 완화된다.

정부는 27일 세종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사적연금 활성화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연금제도 도입이 의무화돼 2022년에는 모든 기업으로 확대된다. 2016년 신규 적용대상 기업은 672곳이다.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는 2017년 300~100인, 2018년 100~30인, 2019년 30~10인, 2022년 10인 미만 등 기업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기업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기존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유지는 허용하되 제도 전환 이후 적립분부터 의무화하고, 기한 내에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다. 신설 사업장이 설립 1년 내에 퇴직연금을 도입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연합뉴스



다문화가족 포도수확 체험

27일 광주시 북구 금곡 팜스테이마을에서 농가주부모임 광주시연합회(회장 박남단) 회원들이 베트남·중국 등 다문화가족과 함께 포도 수확 체험을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농협광주지역본부 제공>

## 쏘울 '트레이드 마크'

### 기아차, 공모 나선다

기아자동차가 기아차 대표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쏘울의 '트레이드 마크' 공모에 나선다.

9월26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공모전은 지름 108mm의 원안에 쏘울만의 특징을 디자인으로 표현하면 된다. 쏘울 '트레이드 마크'를 표현할 원의 지름 108mm는 쏘울 내장 디자인의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스피커와 에어벤트가 결합된 '에어벤트 일체형 스피커'의 크기를 나타낸다.

기아차는 디자인, 마케팅 부서 등의 임직원 투표를 통해 출품작 중 20개를 선정하고 이를 '쏘울 브랜드 웹사이트(soul.kia.com)'에 게시한 뒤 고객 온라인 투표를 실시, 6개의 작품을 최종 당선작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공모전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이메일(soultrademark@gmail.com)을 통해 참가 신청서와 함께 자신이 디자인한 작품을 제출하면 된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기아차 오늘 2차 부분파업... 금융노조 내달 3일 총파업

기아자동차 노조가 지난 22일에 이어 28일 2번째 파업을 실시한다. 금융노조는 내달 3일 14년 만의 총파업에 들어간다.

27일 금속노조 기아차지부(기아차 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지난 26일 밤 2차 정의대책위원회 회의를 통해 28일 광주공장 등 3개 공장에서 1·2조가 각 6시간씩 총 12시간 총량제 부분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지회는 28일 1조가 오전 9시부터, 2조가 오후 5시40분부터 각 6시간씩 부분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기아차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 15만9614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또 단체협상에서 주야 8시간 근무제 도입, 완전월급제 쟁취(시급제 대신 월급제 전환), 회사 순이익 30% 성과급 요구, 국민연금 지급시기까지 정년 연

장 등을 핵심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2일 부분파업으로 차량 500여 대의 생산차질과 80억원 상당의 손실을 기록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지난 26일 진행된 총파업 찬반투표 결과 91%의 찬성률로 총파업이 가결됨에 따라 9월3일 하루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번 총파업은 지난 2000년 7월 정부 주도의 인위적 합병에 반대해 6만5000명이 총파업했다. 금융노조는 현재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차별 철폐와 모성보호 및 양성평등 실현, 정년연장, 통상임금 문제 해결, 성과문화 혁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총파업에는 광주·전남 2000여명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5만명 이상의 노조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은 비조합원과 파트타임 직원 등을 동원해 업무 공백을 메울 예정이지만 정상적인 영업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 아이디어 이 피었습니다!

## ● 홍보지 및 판촉물

● 전단지

● 현수막

● 상패

● 전단지

● 각종 인쇄물

● 현수막

● 각종 인쇄물

● 홍보지 및 판촉물



## 왕인문화기획

Tel. (061)471-1717~1718

Fax. (061)471-1719

E-mail. ansqudtjs12@hanmail.net

